

## 北, 광주U대회 선수단 108명 참가 신청

육상·유도·탁구 등 8개 종목 신청서 FISU 접수  
성사 땀 대회 흥행·남북 화해협력에 획기적 전기  
김종 문체부 2차관 “북한 참가 적극 지원하겠다”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이 공식참가 입장을 알렸다. 정부도 북한 선수단 참가를 추진하기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선수단이 참가한다면 대회 흥행은 물론, 남북화해협력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단을 파견해왔으며, 규모는 평균 45명 선이었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광 북·분단 70년을 맞은 올해 남북한이 함께 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로 스포 츠를 통한 남북교류의 초석 마련에 기여 하는 대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북한 선수 참가 가 확정된 만큼 응원단 파견과 성화봉송 판문점 경유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 관도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U대회 지원 전담팀(TF팀) 1차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와 만나 “광주U대회 조직위로부터 북한선수단과 응원단 참가, 판문점 경유 성화봉송 등의 건의를 받았다”며 “북한 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초청 강연에 참석했다가 괴한의 공격을 받고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리퍼트 美대사 흉기 피습 얼굴·팔 찢려... 치명상 면해

범인은 문화단체 대표 김기종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가 세종문화회관 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가 진보성향 문 화단체의 대표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 다.

이번 사건은 동맹국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가 처음 테러를 당한 셈이어서 한미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관련기사 2면〉

경찰에 따르면 리퍼트 대사는 5일 오전 7시 40분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 린 민중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 최 조찬 강연회에서 강의를 준비하는 도중 김기종(55)씨로부터 25cm 길이의 흉기로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김 씨는 진보성향 문화운동 단체인 우리마당 대표를 맡고 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리퍼트 대사 오른쪽 뒤쪽 테이블에 있던 김씨가 갑자기 다가와서 리퍼트 대사를 밀어 높이고 흉기 로 여러 차례 공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 미수 또는 흉기 등 소지 상해죄 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 주 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주한 미국 대사는 요인보호 대상 이 아니고, 이날 대사관 측에서 별도의 경 호요청은 없었다며 당시 기동대 1개 제대 를 세종홀 주변, 정보와 의사 형사를 세종 홀 안팎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리퍼트 대사는 피를 많이 흘린 채 순찰 차를 타고 인근 강북삼성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가 다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

져 치료를 받았다.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뺨에 5cm, 왼쪽 손목에 자상을 입은 것으 로 전해졌다.

리퍼트 대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을 상원의원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보 좌해 온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수석보좌관 겸 비서실장,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 국 방장관 비서실장 등의 요직을 거쳐 지난해 10월 역대 최연소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했 다.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리퍼트 대사가 한국시각으로 5일 오전, 강연을 하던 도중 피격을 당한 사실을 확인한다”며 “우리는 이 같은 폭력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케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강북삼성병원에서 기 자들과 만나 “한미 연합훈련(키 리졸브 연 습과 독수리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 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광주의 아들 기성용, 박지성 넘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전에서 6호골 한국인 시즌 최다골 기록 ▶20번

## 호남선 KTX 4월 2일 개통

13일부터 예매 가능

호남고속철도가 다음달 2일 정식 개 통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충북 옥 성에서 광주 승점을 잇는 호남고속철도 가 다음달 2일 공식 개통될 예정이다. 다 음달 1일 개통식을 한 뒤 다음날인 2일 KTX 운행을 시작하겠다는 게 국토교 통부 측의 설명이다.

코레일도 호남선 KTX 운행 시작하 는 것을 바탕으로 내부 계획을 수립하고

열차 운행 시간표 등 세부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오는 12일까지 운행 시간표 등을 확정해 오는 13일 오전 7시부터는 4월 2일 이후 운행 열차의 예매가 가능 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월 말 한국철 도시설공단으로부터 신형 KTX 차량을 인수한 코레일은 지난 한 달간 시험 운 전을 진행하며 정식 개통에 대비해왔다.

한편 호남고속철도 1단계 노선이 개 통되면 서울 용산~광주승정역간 소요 시간은 1시간33으로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진다. 현재 주말기준 하루 62회 운행되는 호남선 KTX는 총 68편이 운 행될 예정이다. 용산~광주승정·목포 의 경우 현재 44회에서 48회로, 용산~ 여수 구간은 18회에서 20회로 늘릴 방침 이다. 호남선은 4회, 전라선은 2회 각각 증편된 것이다.

/이종행기자 golee@-연합뉴스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 광주·전남 ‘상생’ 궤도는데...7개 사업 또 추가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6기 출범과 함 께 시작한 ‘상생프로젝트’ 사업들이 1년이 다되도록 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신 규사업을 추가해 내실보다는 ‘몸집 부풀 리기’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다.

〈관련기사 3면〉

5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시·도 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상생 협력을 선언 하고 같은 해 10월 14개 상생과제 선정과 함 께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공식 출 범시켰다. 대표적인 상생과제는 발전연구원

통합, 아시아문화 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제2의 남 도혁신권립, 무안공항 활성화 등이다.

14개 사업 중 상생발전위원회만 설치됐 을 뿐 상생과제 1호였던 광주·전남발전연 구원 통합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는 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또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주·전남 너 나 지 벨리사업은 서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 한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상생은 커녕 양 시·도간 갈등으로 변질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한 광 주-무안공항의 상생사업은 중단된 지 오래고, 장성군과는 평동 포 사격장 이전문 제로, 담양군과는 요철 천재가수인 고 김 정호 추모사업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도 시·도는 신규 협력과 제로 광주제3순환선 건설 등 7개 사업을 발굴해 추가 논의 중이다.

상생보다는 갈등으로 치닫는 양상도 보 이고 있다. 시는 민선 6기들어 장성군과

市·道 프로젝트 가동 8개월  
“내실보다 몸집 부풀리기” 비난

광산구 평동 포 사격장의 장성 이전 문제 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가 하면, 담양군 과는 광주가 고향이자 담양이 외가인 가 수 고 김정호의 추모 사업을 놓고 충돌 조 집을 보이고 있다. 시·도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내 한전이 추진중인 에너지 벨리 를 놓고도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한전이 500개 기업 유치 계획을 밝히자 시·도는 서로 더 많은 기업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 한 인센티브 마련에 나서는 경쟁양상을 보 이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디자인을 밝히다  
The New generation CL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산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우대로 1041번지/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CLS 250 BlueTEC 4MATIC Coupé 2,143cc, 1,905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4.3km/ℓ (도시연비: 12.8km/ℓ, 고속도로연비: 16.8km/ℓ), 2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30g/km • CLS 250 BlueTEC 4MATIC Shooting Brake 2,143cc, 1,975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3.4km/ℓ (도시연비: 11.9km/ℓ, 고속도로연비: 15.9km/ℓ), 3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48g/km • CLS 400 2,996cc, 1,805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0km/ℓ (도시연비: 8.8km/ℓ, 고속도로연비: 11.9km/ℓ), 4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77g/km • CLS 63 AMG 4MATIC 5,461cc, 2,01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 (도시연비: 6.1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256g/km • CLS 63 AMG 5.4MATIC 5,461cc, 1,995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 (도시연비: 6.2km/ℓ, 고속도로연비: 8.6km/ℓ), 5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255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효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